



가와사키 시 川崎市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뉴스레터

뉴스레터 No.35

편집 · 발행 : 시민 · 어린이국 인권 · 남녀공동참여실 2008년 12월 14일 발행

<http://www.city.kawasaki.jp/25/25zinken/home/gaikoku/index.htm>

차이를 뛰어넘어 ~ 제 7기 스타트 ~

가와사키시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제 7기 위원장 조용제



대표자회의에서는 제 1기부터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고 있는 외국인’,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이 혼재되어 있다. 그 중에는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포함되어 있다.

‘모국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는 외국인’이라 하면 왠지 모르게 빠르게 말하는 사람을 가르키는 것 같은데, 나를 포함하여 어느 국적이라도 2세대는, 일본에 처음 온 부모세대의 고생과 언어장벽의 어려움을 피부로 느끼면서, 그리고 대부분이 속해 있는 일본의 교육현장에서 마음이 편하지 못함을 몸소 느끼면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정체성과 전통문화 등에 대한 집착은 좋은 의미에서도 나쁜 의미에서도 상당히 강하다.

반면, 대표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해보아도, 문득 바다를 건너온 세대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이러한 때는 완전히 일본인적 시선이다 (일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대표자들이 인연이 닿아 외국인 시민으로서 의사교환을 할 수 있는 장이 이곳에 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종다양한 가치관, 둘러싸인 생활환경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일본사회에서의 공생실현은 멀고도 먼 일이 될 것이다.

우리들은 가와사키시에 생활의 기반을 둔 다양한 외국인들의 대표이므로, 보다 살기 좋은 환경만들기를 위해, 한정된 기간이지만 신중하게 또한 진지하게 노력해 나아갑시다.

교육문화위원회와 사회생활위원회

회의보고 ~2008년 5월—9월~

제 7회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에서는 26명의 대표가 2개의 위원회로 나뉘어 논의를 합니다.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에 대해 폭넓게 논의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외국에 뿌리를 두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지원과 일본어 교육, 그리고 학교와 지역에서의 다문화 이해교육 등에 대해, 문제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고 있습니다. ‘사회생활위원회’에서는 의료와 공생생활이라는 2가지 시점에서 논의를 합니다. 의료에서는 통역 자원봉사와 재해시의 의료에 대해, 공생생활에서는 인권 · 차별 · 시민문화 · 시민참여의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오픈회의에서는 대표자 이외의 외국인 시민과 일본인 시민의 의견을 듣고, 보다 좋은 제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편리메모● 2007년도 다언어 상담창구에서 1,500건이 넘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생활속에서 어려웠던 일 고민하고 있는 일에 대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시민 상담코너 (전화: 044-435-7000, <http://www.kian.or.jp/soudan.html>) 자세한 것은 뉴스레터 No.34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표자회의 심의개요



제 2회 제 1 일 (6월 15일)

- 위원회의 설치
- 정 · 부위원장의 선출
 - 교육문화위원회
위원장 초 가쿠호우 부위원장 김용덕
 - 사회생활위원회
위원장 박 해숙 부위원장 아디카리 스티프

제 2회 제 2 일 (7월 6일)

- 교육문화위원회
 - 시의 일본어 학습지원
해외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아동 · 학생에게 모국어로 지원을 하는 일본어지도 등 협력자 파견제도, 시민관과 후레아이관에서 하고 있는 일본어 학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 사회생활위원회
 - 의료정보 · 의료통역
외국어로 진찰할 수 있는 병원의 리스트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다언어 정보의 편리함, 전문용어의 어려움에 대해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의료통역이 필요한지를 논의했습니다.



제 3회 제 1 일 (9월 29일)

- 교육문화위원회
 - 시의 다문화 이해교육에 대해
외국인 시민이 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민족문화강사 만남사업과, 외국인 시민이 중심이 되어 문화 소개와 모국어 교육 등을 하고 있는 시민 자주학급 · 시민 자주기획사업에 대해 이해를 높였습니다.
- 사회생활위원회
 - 의료정보 · 의료통역에 대해
시의 외국인을 위한 의료 가이드가 더욱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또한 가나가와현의 의료통역 파견시스템 사업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 * 외국인 대표자회의 홈페이지에서 의사록을 볼 수 있습니다.

☆신대표자의 소개

사정에 의해 대표를 사직하신 분 대신,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되었습니다.



이름 인 상상

국적 중국

대표자가 된 기분 다문화 공생의 도시 가와사키의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좋아하는 말 뜻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 2008 년도 연간스케줄 ★

☆오픈회의 12월 14일 (일) 장소: 타카츠시민관 시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대표자가 의견교환을 하는 열린 회의입니다.

☆가와사키시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장소: 가와사키시 국제교류센터 시간: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 3회 제 2일 11월 16일 (일)
제 4회 제 1일 1월 25일 (일) 제 2일 2월 22일 (일)
※ 누구나 방청할 수 있습니다. 부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편리메모 ● ‘가와사키시의 다언어 홍보자료일람’ 이 완성되었습니다. 가와사키시에서는 육아 · 교육에서 방재까지 100건에 달하는 행정자료가 다언어로 (번역과 일본어에 루비가 달려있는 것) 되어 있습니다. 부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운 시청, 시민관, 도서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회의 홈페이지에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페스타 미조노쿠치에 참가

★외국인 시민 대표자회의 텐트★



10월 18일에 개최된 ‘다문화 페스타 · 미조노쿠치 2008’에서, 시민과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대표자회의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참가했습니다.

올해는 바람이 약간 강했지만, 날씨가 좋아 많은 지역의 시민 여러분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출품한 것은 ‘새우튀김과자’, ‘물만두’와 ‘루마니아의 야채스프’였습니다. 대표자들이 힘을 합해 만들었고, 많은 시민들이 맛있게 드셨습니다.

모두가 즐겁게 만든 만두의 모양은 사람에 따라 제각각이었지만, 맛은 아주 좋았습니다. 루마니아의 수프도 여러가지 야채와 고기가 들어있어 이것 역시 맛이 좋았습니다.

물만두의 모양은 같지 않아도 좋으며, 스프에는 많은 야채가 밸런스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맛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로 아닐까요? 사람은 한사람 한사람 차이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서로 인정함으로써 자신답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즐거웠습니다.

(김 성미)

★다문화 페스타의 다문화 교류★

다문화 페스타에는 이번에도 여러 단체들이 참가하여, 다문화 스테이지와 다양한 문화의 요리노점이 열렸습니다.

우리 대표자들은 요리준비를 하면서, 즉석 요리를 함께 만들고 있는 다른 그룹에게 소개하거나, 만드는 방법을 보여주면서 교류를 넓혔습니다. 다른 그룹의 사람들에게 ‘새우튀김과자’를 체험해 보도록 했습니다.

참가한 많은 시민이 다문화 스테이지에서 각국의 음악과 춤을 즐기며,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문화를 접할 수 있는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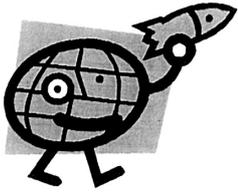
또한 전통놀이를 소개하는 텐트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붐볐습니다. 어린이들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며, 종이접기와 종이 잠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도 할아버지와 할머니들도 즐거운 하루였다고 생각합니다. 가와사키시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 쿠후)

●편리메모● 가와사키시 인권 옴브즈퍼즌: 인권침해를 받은 사람을 구제합니다. 월수금 13:00-19:00 토 9:00-15:00
어린이 상담전화: 0120-813-887(무료) 남녀평등 상담전화: 044-813-3111 비밀은 지켜드립니다.

34호 고의갑 대표의 소개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올바른게는 ‘올바른 한글 (한국 · 조선어판 이외에 실려있던 것)’입니다.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편집위원회)



대표자와 다문화 공생체협

제 1 회

■ 네팔 사람과 색깔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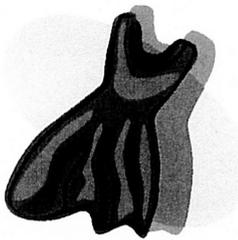
네팔에서는 사람들의 생활에서 ‘색깔’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네팔인 특히 기혼여성으로서 가장 의미를 가지는 것은 옷의 ‘색깔’이다. ‘빨강’은 길조의 색깔이라고 한다. ‘빨강’은 삶, 행복, 행운을 의미한다. 따라서, 축제, 종교의식, 결혼식에 빨간색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편 ‘검정’은 불행의 색이라 한다. 따라서 좋은 일에는 검은색 옷은 입지 않는다. 여성은 미망인이 되면 빨간색 옷을 입지 않는다. 남편이 사망하고 1년간은 하얀색 옷을 입는 것이 일반적이다. 1년이 지나면 다른 색깔의 옷을 입지만, 빨간색 옷은 입지 않는다.

여러분 네팔에 오셨을 때, 축제, 결혼식 등이 있으면, 꼭 빨간색 옷을 입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미망인에게 빨간색 옷을 선물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아디카리 스티프)

흰색 · 빨강 · 검정의 사용구분은 문화에 따라 비슷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 어렵네요 (편집위원회)



■ 우크라이나와 일본의 풍습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 언어만이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나라는 각각의 문화, 습관, 교육, 이에 의해 다른 생각, 기분을 표현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사람들은 외국에 와서, 그 나라의 문화, 언어를 공부합니다. 이와 함께 그 나라의 습관을 익히려 합니다. 배우는 사이에 “아, 이 습관, 저 습관도 우리나라 습관과 비슷하네...” 하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일본에 온지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어떤 일본의 습관은 우크라이나에도 있습니다. 신세를 졌을 때 감사의 마음으로 선물을 하는 습관입니다. 일본에서 선물을 했던 어느 때인가,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이라고 하면 케익이나 과일 정도의 것으로, 어느날 선물을 했더니 상대방은 기뻐하는 얼굴이 아니라, 약간 화가 난 듯한 얼굴로 받으면서, 물론 감사의 말은 했지만, 어딘지 그다지 산뜻하지 못한 기분으로 헤어졌습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어야 할 습관인데, 실제로 일본에서는 같은 습관이라도, 선물을 하는 방식, 받는 방식 혹은 마음을 표시하는 방식은 나라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쿠슈타 오레나)

선물도 문화에 따라 다양하네요. 일본인은 선물을 받을 때, 기뻐하는 표정을 짓기 보다는, 곤란한 표정으로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편집위원회)

< 문의 > 가와사키시 시민 · 어린이국 인권 · 남녀공동참여실 (川崎市市民 · こども局人権 · 男女共同参画室)
우 210-8577 가와사키시 가와사키구 미야모토초 1 (〒210-8577 川崎市川崎区宮本町1)
Tel : 044-200-2359 Fax : 044-200-3914 E-mail : 25gaikok@city.kawasaki.jp
대표자회의와 뉴스레터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 감상을 기다리고 있습니다.